

# 선교 매트릭스

TMTC 15기 김은진

선교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공부해 볼 엄두도 내지 못했던 내게 겨울 수련회 선교사님의 말씀은 큰 도전이 되었다. 늘 선교는 나와는 먼 이야기로 생각되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무엇이 있을지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싶었다. 그래서 TMTC 훈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 가운데 [선교 매트릭스] 책은 나에게 선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

교회의 본질은 선교이고 선교를 위해 교회가 존재하며 선교가 교회보다 우선이다. 선교가 중심이 되어 교회가 움직여야 한다. 선교적 교회에서는 성도들 각자가 선교사처럼 사는 것이다. 선교적 교회는 교회에서의 봉사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국내 해외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섬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회적 책임, 복음전도, 세계선교를 균형있게 감당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어야 한다.

선교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1) 선교사를 파송한다. 2) 선교사를 돕는다. 3) 선교단체와 관계를 잘 맺는다. 4) 지금 있는 곳에서 선교에 직접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선교사는 1) 양심에서 나온 진실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선교사가 투명하게 살고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 3) 재정과 시간 사용에 있어서 선교지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4) 선교사가 원하는 사역이 아니라 현지인을 위한 사역을 해야 하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역을 해야 한다.

선교사의 자질은 능력에서 사람됨 우선이 되었다. 선교사 자질 중 가장 중요한 자질, 혹은 인격이 좋거나 혹은 좋지 않다는 기준은 선교사가 자신을 정확하게 알고 있느냐 하는 자아성찰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이 부족한 자인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다.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은 자신도 똑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지 않고 용서 할 줄 안다. 자아를 성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산다. 이런 사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선교사는 무엇보다 신앙이 있어야 한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세상에 목숨을 걸지 않는다.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양보할 줄 안다.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사람됨이 좋은 사람이다. 사람됨이 좋은 사람은 사랑과 착함과 온유함으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다. 이러한 복음이 진정한 복음이며 이러한 선교가 진정한 선교이다.

선교는 섬김의 선교가 되어야 하고 현지인 중심의 선교가 되어야 한다.

앞으로 나는 어떤 선교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해 생각 본다. 나는 시니어 선교의 나이인가? 젊은 나이에 선교사역을 시작하면 좋겠지만 젊은 선교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이른 나이에 은퇴하는 사람들이 시니어 선교사가 되면 아직도 많은 일을 할 수 있기에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하기에 나도 가능성이 있다. 시니어 선교를 준비한다면 언어습득, 협력사역, 건강 문제, 선교단체와의 관계 문제 등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여 대처하는 방안들을 준비하는 것이 내게 필요하다. 시니어 선교사로서 선교지에서 나는 한국어교육, 어린이케어, MK사역, 선교사케어 등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만약 내가 선교지로 나갈 수 없다면 나는 이주민 선교를 국내에서 할 수 있다.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을 버리고 환대로 섬겨야 한다. 교회를 중심으로 이주민 단체들이 협력해서 다양한 사역을 할 수 있다. 또한 내가 있는 자리에서 이주민들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선교 훈련을 통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선교를 찾아보고 실천하도록 해야겠다.